

EU, 전기화(Electrification) 실행계획과 ETS 개편으로 전기 기반 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

해당국가	EU	기관(기업)	유럽집행위원회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플랜트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

□ EU 집행위원회는 「전기화(Electrification) 실행계획」과 탄소배출권거래제(ETS) 개편안을 발표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

- 산업·수송·건물 부문의 전기화를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하고,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
 - 유럽의 최종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 비중을 현재 23%에서 2040년 46%까지 확대해 세계 최초의 '전기 동력 대륙(Electro-continent)' 구축을 목표로 제시
 - 화석연료 수입 비용을 연간 최대 2,600억 유로 절감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춰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
- 전기요금 부담과 전력망 제약을 완화하고 전기 기반 기술의 도입과 시장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요금체계 개선과 전력망 확충을 포함한 종합 지원정책을 추진
 - 전기요금과 화석연료 간 가격 격차를 완화하고 히트펌프·전기차 배터리 등 전기 기반 기술의 보급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
 - 전력망 확충과 ETS 개편을 연계하여 전기화 기반을 강화하고,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구축

□ 전기요금 제도 개선과 전력망 확충, ETS 개편을 연계하여 기업과 소비자의 전기화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, 산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탈탄소 전환을 지원

-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고 초기 투자 지원을 확대하여 전기화 기술의 도입과 보급을 촉진하고, 기업과 소비자의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
 - 회원국이 특정 소비자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전력망 이용요금과 세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전기화 전환을 촉진
 - 스마트미터 보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리스와 사회기후기금 등을 활용하여 히트펌프와 전기차 등 전기화 설비의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기반 기술의 보급 확대를 지원
- 전력망 확충과 ETS 개편을 연계하여 전기화 기반을 강화하고,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
 - 별도의 '그리드 패키지(Grid Package)'를 통해 전력망 구축을 가속화하고 혁신적인 전기화 기술의 시장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,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
 - ETS 개편을 통해 변화한 국제 환경에 대응하는 탄소가격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탈탄소 정책을 지속 추진

※ 출처 : 유럽집행위원회(2026.07.17), A plan to make Europe the first electro-continent